2007. 2. 5 제160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

2007. 2. 5 제160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

도시경영·경제

1. 도요타의 '카이젠' 방식은 생활화해야 실효성 있어 (일본 오사카市)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조합인큐베이터 센터 설립 (브라질 상파울루市)
3. 장난감 기부 시 관광버스 요금 할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4. 택시운전사에게 관광프로그램 자격 증명서 전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5.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주민권한 강화 (영국)

디지털도시

6.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사업 발표 (샌프란시스코)
7. 안정적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정보센터 운영 (뉴욕)
8. 대민 전자서비스 체제인 '사우스 리블 게이트웨이' 운영 (영국 랭커셔州 사우스 리블市)

복지·문화

9. 빈민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젝트 확대 (브라질 상파울루市)
10. 노인을 위한 전화대화 자원봉사 '텔레프렌드'(Telefriend) 운영 (뉴욕)
11. 저소득층에 생필품 저가 판매 (브라질 쿠리치바市)
12. 무료 탁아소 확대로 출산 장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13. 가정폭력 예방 조치 발표 (영국)
14. 영양관리사가 식료품 및 영양과 관련된 시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담당 (브라질 쿠리치바市)

목 차

도시환경

15.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 리본팀' 구성 (캘리포니아州 팔로알토市)
16. 소음 규제 규정 시행 계획 (뉴욕)
17. 사업장 자원쓰레기 무상수거 실시 (일본 오부市)
18. 에코포인트 통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市)
19. 교통 신호등에서 연간 온실가스 5만 톤 배출 (영국)

도시교통

20. 도시 주차카드 판매 (뉴욕)
21. 광역버스카드 '이지페이 익스프레스' 시스템 시행 (뉴욕)
22. 무료 견인서비스 확대 시행 (캘리포니아州 오렌지카운티)
23. 시내버스 운전기사 요건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도시계획·건설·주택

24. 장기적 서민주택 공급을 돕도록 시장 권한 강화 추진 (런던)
25. 개발자와 문화재 보호기관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영국 에든버러市)
26.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시장 권한 행사 (런던)
27. 도시계획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의원 대상 도시계획 교육 필요 (영국)

방재·안전

28. 효율적·총괄적 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통제센터 회사 설립 (영국)

[벤치마킹 사례]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

<주요 내용>

○ 동경都는 고령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고령자 기술전문학교를 운영

-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호텔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주로 50대 초반의 고령자가 향후 5~10년 동안 종사할 수 있는 희망직종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능 위주의 중급 직업훈련을 함.

·예를 들어 빌딩설비 관리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냉·난방 공조, 전기배선 관련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고 면허증 취득도 가능

- 동경都 일자리센터 10~12층에 연면적 4132㎡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고 지도원 9명을 포함해 직원 21명과 외부강사 114명이 있음.

- 훈련 규모는 주간부의 경우 6개 과정, 연간 정원 480명, 훈련기간 6개월, 훈련시간 800시간이고, 야간부는 5개 과정, 연간 정원 660명, 훈련기간 6개월, 훈련시간 120~180시간임.

- 주간부 과정은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리폼,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경영관리 실무, 비즈니스 경리 업무가 있음.

·빌딩설비 관리 과정에서는 빌딩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일러, 냉·난방 공조, 전기, 소방방재 등의 기술훈련 실시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과정에서는 객실 청소와 식당의 음식서비스에 관한 훈련 실시

·인테리어 리폼 과정에서는 가정 및 사무실의 창호, 벽지, 목공, 카펫 등의 수선 및 설치에 관한 훈련 실시

- 훈련생의 구성과 특성을 보면 주간부의 경우 평균 연령이 54.8세, 남녀 비율은 51:49, 야간부의 평균 연령은 57.2세, 남녀 비율은 66:34임.

- 훈련생은 훈련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동경都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수급자에게 수당 지급

- 동경都 일자리센터는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
·2006년 3월 주간과정의 취업실적을 보면 구직희망자 447명 가운데 265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59%였음.

<표 1> 동경都 고령자 기술전문학교 주간과정 직종별 교육 및 취업현황(2005. 4~2006. 3)

	정원	지원자	비율(%)	입교자	수료자	비율(%)	취업희망	취업자	비율(%)
빌딩설비 관리	60	175	292	58	58	100	58	54	93
인테리어 리폼	60	91	152	60	58	97	58	44	76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60	81	135	58	52	90	52	36	69
경영관리 실무	60	105	175	59	53	90	53	24	45
비즈니스 경리	60	143	238	60	59	98	59	47	80
비즈니스 리프레시	180	175	97	175	167	95	167	60	36
합계	480	770	160	470	447	95	447	265	59

자료: 동경 고령자 기술전문학교 내부자료

○ 고령자 기술전문학교 외에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훈련

- 도립 직업전문학교 7곳에 설치돼 있는 고령자 특별반에서 총 31개 과정 운영

- 동경 인재세미나 과정에서 영업판매, 경영재무회계, 생산관리에 관한 2개월, 128시간 코스를 운영하며 총 정원은 120명임.

<해설 및 평가>

○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이 주는 시사점

- 첫째, 고령자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전문직종에 취업 가능
·동경都에서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직종이 주로 청소, 건물 경비와 같은 단순직종으로 제한돼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호텔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훈련하고 있음.
·청·장년층이 기피해 인력난을 겪는 직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급여와 근로조건이 양호

- 둘째, 약 10년간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약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체계적인 훈련
·지금까지는 고령자의 잔여 근무기간이 짧고 교육 효율성에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령자에게 전문적인 직업훈련 시행을 꺼렸음.
·하지만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 시행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훈련 의지가 매우 강하고 결과적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재취업률이 높아 고령자의 전문직종 직업훈련이 성공적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많은 고령자가 정년퇴직하거나 조기퇴직하고 있음.

-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퇴직자가 모은 생애저축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년 보장에 불충분

- 고령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 퇴직 후에도 부가소득을 얻거나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

- 고령자가 재취업하려고 할 때 기업의 인사관행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평생직종이나 전문직종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움.

- 정년퇴직 전에 기업이나 정부가 퇴직 후 종사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관련 직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이행과정이 필요

-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은 청·장년 재직자 위주로 편성돼 있고 기업 역시 퇴직 예정인 고령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음.

○ 현 서울시의 직업훈련

- 서울시 4개 직업전문학교의 입교연령 상한은 55세로 고령자의 직업훈련은 원천적으로 봉쇄

- 이러한 환경에서 고령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자신의 적성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움.

-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 재취업자에게 주로 청소, 건물 경비, 보모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 단순 직업훈련과 같은 단기훈련(3~7일)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단기간 단순직종 훈련으로 구성된 직업훈련 정책과 직업 알선은 고령자 인력개발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순·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에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면 먼저 업종 조사 및 고용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적합한 직종과 인력수요를 찾아야 함.
  ·가능한 청·장년층이 기피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종을 조사

- 서울직업전문학교 입교연령 상한선을 현행 55세에서 60세나 65세로 조정하고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 직업훈련반을 편성
  ·고령자가 훈련 속도, 난이도, 내용에 적응하는 것은 정규반의 청·장년과는 다르므로 직업훈련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

<벤치마킹 기대효과>

- 현재 서울시의 고령자 직업 알선과 훈련은 청소, 경비, 보모 등 단순 저임직으로 제한돼 있음.

- 동경都의 고령자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서울시에서 실시한다면 고령자가 좀더 양호한 근로조건에서 높은 직업만족도를 갖게 될 것임.

/윤형호 도시경영부 연구위원(younh@sdi.re.kr)

도시경영 · 경제

1. 도요타의'카이젠'방식은 생활화해야 실효성 있어 (일본 오사카市)

○ 오사카(大阪)시가 직원복지 문제와 시민서비스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카이젠 코시엔'(改善 甲子園) 개최

- 2006년 2월, 제안된 432개 사례 중에서 17개 사례를 표창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음.
  ·조토(城東)구청이 구청 홍보지 문장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기호화해 읽어주는 시각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이를 도입한 구청은 한 곳뿐이었음.
  ·한 소방서가 제안한 '길거리 방재훈련'을 도입한 소방서는 한 군데도 없었음.

- 2007년 두 번째 카이젠 코시엔을 열었으나 제안 건수가 28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이 중 13개 사례를 표창했지만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받음.

- 도요타가 세계로 약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알려진 '카이젠(改善) 방식'을 잘 아는 경영평론가 가타야마 오사무(片山修)는, "도요타에는 매일 개선을 촉진하는 조직풍토가 있어 가능한 것이고, 연 1회 표창만으로 개선은 무리"라고 말함.

(osaka.yomiuri.co.jp/tokusyu/kaikaku/oc70112a.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벤치마킹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세계 도시가 우수사례(Best Practices)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확산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도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제안되는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와 시정 우수사례를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상시제안 체계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적 홍보와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벤치마킹 효과를 추구해야 함.

/김귀영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gykim@sdi.re.kr)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조합인큐베이터 센터 설립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산하 교육기관인 상파울루대학을 통해 국민조합인큐베이터 센터(Incop/UNESP) 설립

- 국립 국민조합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브라질 연대경제국의 승인을 받아 성 카를로스 연방대학과 상파울루대학의 4개 캠퍼스에 국민조합인큐베이터 설치

·이를 위해 프로젝트 연구·재정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했음.

- 센터는 연대경제와 협동조합주의 정신에 입각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업자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실직상태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도록 교육 등을 제공

(www.saopaulo.sp.gov.br/sis/lenoticia.php?id=80410)

3. 장난감 기부 시 관광버스 요금 할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가 2006년 12월, 상태가 좋은 중고 장난감이나 신형 장난감을 가져올 경우 市 관광버스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 개최

- 이벤트를 통해 市 관광도 장려하고 기부 받은 장난감은 고아원이나 빈민층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사회활동도 전개할 계획

- 市 관광버스는 2층 버스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0분, 6시에 운행

·요금은 1층 탑승 시 5헤알(약 2000원), 2층에 탑승하면 7헤알(약 2800원)임.

·관광버스는 약 80분 동안 포르투알레그레市 주요 관광명소 20군데를 돌며, 전문 가이드가 안내함.

(www2.portoalegre.rs.gov.br/cs/default.php?reg=69872&p_secao=3&di=2006-12-20)

4. 택시운전사에게 관광프로그램 자격 증명서 전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가 꼬오빠택시(Coopataxi)와 꼬우빠리오까(Cooparioca) 등의 택시조합 소속 택시운전사 40명에게 리우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 자격 증명서 전달

-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택시에는 자격증명서를 부착할 수 있음.
  ·관광객이 리우데자네이루市가 인정한 모범택시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市 관광국은 전화(2588-9008)로 항의 및 건의 사항을 접수받고 있음.

- 리우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은 市가 2007년 '리우 판-아메리카나 경기'(Jogos Pan-americanos Rio 2007)를 위해 택시운전사 2000명을 포함한 7000여 명의 관광분야 노동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
  ·현재까지는 400명의 택시운전사와 웨이터, 호텔·레스토랑 직원, 영세기업인, 자영업자, 방범대원 등 26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

(www.rio.rj.gov.br)

5.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주민권한 강화 (영국)

○ 영국 정부는 비영리법인인 임대주택관리회사(Tenant Management Organization)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법령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주거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485파운드(약 8730억 원)를 투자할 계획

- 주민의 법률 제안 권한 부여는 잉글랜드 지역 임대주택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존경프로그램(Repect Programme)의 일환임.

-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주민의 법률 제안 권한과 대규모 재정투자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하고 임대주택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함.

(www.communities.gov.uk/index.asp?id=1002882&PressNoticeID=2330)

디 지 털 도 시

6.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사업 발표 (샌프란시스코)

○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市 뉴섬(Newsom) 시장은 2007년 1월 5일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으로, 구글(Google)社와 市가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산상 비용부담이 없는 인프라임.

- 모든 행정서류를 온라인에 정기적으로 올려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지난 몇 년간의 논의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음.

- 뉴섬 시장은 이 사업이 정보격차 해소와 책임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공공-민간 협력 사업으로 평가받음. 궁극적으로 정보접근성 향상, 하드웨어 제공, 시민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 지속적인 정보기술 접근성 제고 등의 디지털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음.

(sfgov.org/site/mayor_index.asp?id=52549)

>>> 전문가 검토의견

- 샌프란시스코市의 민관협력 사업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민간부문의 수익모델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터넷 접속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ISP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해 사용자 접속 위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광고를 뿌릴 수 있는 측면에서 광고 수익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u-Seoul 비전과 연계해 공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민관협력(PPP)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가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7. 안정적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정보센터 운영 (뉴욕)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市가 주도적으로 시민에게 주택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시 주택정보센터'(New York City Affordable Housing Resource Center)라는 웹사이트 운영

- 이 센터에서는 주택가격 정보뿐 아니라 아파트 임대비용 및 관리정보 등 주택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市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권 추첨도 시행하고 있음.

(www.nyc.gov/html/housinginfo/html/home/home.shtml)

8. 대민 전자서비스 체제인 '사우스 리블 게이트웨이' 운영 (영국 랭커셔州 사우스 리블市)

○ 영국 랭커셔州 사우스 리블市는 2년 전 기존 민원서비스 제도를 재검토해 민원서비스, 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합한 '사우스 리블 게이트웨이'(South Ribble Gateway)를 만듦.

- 2005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안내소와 일원화된 민원창구 등을 현대적인 시설로 꾸밈.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기술과 고객 안내 소프트웨어인 Macfarlane사의 'CallPlus Contact Ccentre 소프트웨어', Northgate사의 'Front Office CRM 소프트웨어', RightNow사의 '고객상담 경험관리 솔루션' 등을 도입

- 주택 지원 사업과 주민세 혜택 지원 사업에서 시작해 2006년 8월부터는 쓰레기 수거사업이, 9월부터는 주민세 징수 사업이 시스템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

- 2006년 9월 이후 서비스 만족도가 50%대에서 70%대로 급상승해 2006년 12월

현재 70%대의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음.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7362)

복 지 · 문 화

9. 빈민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젝트 확대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미주개발은행과 협력해 청소년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

- 빌라 노바 카쇼에이링야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극장, 영화관, 전시장, 도서관, 어학당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빈민층 청소년에게 제공

- 市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할 계획
  ·1단계로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시다지 찌라덴찌 지역에 전문가 양성 및 문화센터를 건설함. 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선택권이 좁아 문화활동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 전문가 양성 코스는 음향기술, 웹 디자인, 무대배경 미술 등임.
  ·2단계로 성 마테우스, 과이아나제스와 같은 외곽지역으로 문화센터를 확대 설립할 계획임.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3850)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파울루市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빈곤층 청소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도입해도 손색없는 정책임.

- 그동안 '하자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문화교육 모델 및 청소년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예산은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문화교실을 지원하는 '문화멘토 기업'을 선정해 조달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인력이 현장에 제대로 보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10. 노인을 위한 전화대화 자원봉사 '텔레프렌드'(Telefriend) 운영 (뉴욕)

○ 뉴욕 자원봉사자 기구(VolunteerNYC)가 '고령화사회 준비단체'(The Burden Center For The Aging)와 함께 매일 또는 매주 한 번씩 외로운 노인들과 전화로 대화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 '텔레프렌드'(Telefriend)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로 나눠 자원봉사자와 노인들을 연결해 주고 있음.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www.volunteernyc.org/org/opp/1103796.html)

11. 저소득층에 생필품 저가 판매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가 저소득층 가정에 생필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쿠리치바 패밀리 스토어(Armazens da Familia de Curitiba)를 운영

- 패밀리 스토어는 베토 리샤 시장이 신설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가계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 미만인 가정은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식료품과 위생·세제 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 제공

- 베토 리샤 시장 임기 2년 동안 190만 명이 21개 패밀리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했고, 현재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17만 가정이 패밀리 스토어에서 일반 슈퍼마켓보다 평균 30%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음.

- 프로그램이 신설된 2004년 말 당시에는 90개 품목이 있었으나 현재는 160개로 확대되고, 판매상품도 일급 상표의 상품이라고 시정부 관계자가 밝힘.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7781)

12. 무료 탁아소 확대로 출산 장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가 2006년 12월 21일 0~6세 빈민층 유아를 위한 '행복한 피에로'(Palhaco Feliz) 탁아소를 개장

- 시정부는 무료 탁아소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
  ·2001년 시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계획된 이 탁아소는 육아실, 산모실, 유치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고, 유아 60명을 하루 종일 돌봐주면서 일하는 엄마들에게 편의를 제공함.
  ·특히 신생아실을 신설해 갓난아이까지 맡아주고 있음.

- 市는 앞으로도 저소득·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탁아소 개장을 확대해 육아 부담 문제와 어린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침
  (www2.portoalegre.rs.gov.br/cs/default.php?reg=69866&p_secao=3&di=2006-12-19)

13. 가정폭력 예방 조치 발표 (영국)

○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40억 원을 투자하는 대대적인 조치를 최근 발표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 안전룸(safe room), 경찰서와 연결된 CCTV, 비상신호기를 설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노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용시설 마련과 전문 상담인 배치를 골자로 함.

- 이 조치는 노숙자 8명 중 1명이 가정폭력 피해자고 매년 1만 3000명의 노숙자가 가정폭력과 연관됐다는 통계에 기초함.

(www.communities.gov.uk/index.asp?id=1002882&PressNoticeID=2327)

14. 영양관리사가 식료품 및 영양과 관련된 시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담당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전문 영양관리사가 식료품 및 영양과 관계된 시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할 계획

- 시의회는 이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2006년 12월 28일 쿠리치바 시장이 이를 비준함.

- 앞으로 전문 영양관리사는 교육, 보건, 배급, 공공위생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시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의 영양 및 식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2005년까지 市 소속 공무원급 영양관리사는 2명이었으나, 2006년에 22명으로 증가

- 2004년부터 지역 영양관리사 자문위원회의 참가로 신규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어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으며 그 후 시의회에 법안을 상정함.

- 쿠리치바 시장은, 이 법안이 市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영양 섭취 및 식생활 질이 향상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언제나 예방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7860)

한줄 뉴스

<뉴욕>
-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행사를 실시해 재활용된 나무로 정원이나 공원을 꾸미거나 다른 나무 양분으로 사용
- '운동으로 새해를 준비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1월 초 5일간 스포츠센터 20곳 시민에게 무료 개방
- 시청 영화연극방송 담당부서, 한 달 간의 방송보조자 무료 교육 실시 후 2년간 현장업무 보장과 취업까지 알선
- '희망 2007'이라는, 노숙자 분포 조사 실시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도 시 환 경

15.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 리본팀' 구성 (캘리포니아州 팔로알토市)

○ 미국 캘리포니아州 팔로알토市가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화두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녹색 리본팀'(Green Ribbon Task Force)을 구성

- 새로 구성된 녹색 리본팀의 역할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임.

- 2010년에 2000년 수준, 2020년에 1990년 수준,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약 8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유지가 목표

- 2006년 12월 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팔로알토시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팔로알토市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캘리포니아州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임.

·주요 배출원은 교통과 에너지 사용이고, 통근 교통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90% 정도는 '나홀로 차량'이 차지

·주요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공급 축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현황 측정과 보고, 기후 변화에 영향이 적은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도시 숲 조성, 온실가스 연구 강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계획과 건축활동 조정 등을 제시함.

(www.city.palo-alto.ca.us/greenribbon/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온실가스 감축주체로서 도시의 실질적인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천계획은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의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을 개선하는 이중효과(Co-Benefit) 유발
- 서울시도 2005년에 기후변화 관련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맑은서울추진본부 내에 신설·운영하고 있음.
·에너지, 자원 및 폐기물, 자동차 오염, 교통, 자연환경 보전 등 5개 분야별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 중임.

- 다만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저감목표를 설정한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6. 소음 규제 규정 시행 계획 (뉴욕)

○ 2007년 7월부터 뉴욕시 소음 규제 규정 시행

- 뉴욕시 환경국(NYDEP: New Yor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은 2007년 1월 한 달 동안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부터 뉴욕시 소음 규제 관련 세부 규정을 시행할 계획
·최근 몇 년간 뉴욕시 전역에 주택 붐이 일면서 주거 지역에 건축 건수가 늘어 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뉴욕시 환경국 찰리스 스터큰 대변인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소음이라며, 소음 규제 규정을 시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함.

- 건설 소음뿐 아니라 일반 소음도 대상으로 하는 이 소음 규제 규정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서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미주 한국일보, 2007. 1. 4)

한줄 뉴스

- 브라질 상파울루市, 수공품 시장 내 음식업체 대상으로 위생 관련 규범 및 필수 요건 강연
  ·위생 관련 규범 및 필수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수공예품 시장을 제외한 거리에서 음식 판매는 불법
- 브라질 쿠리치바市, 아우디/우니엉 지역 빈민층을 위한 다세대주택 도시화 공사에 1160만 헤알 (약 46억 원) 투자 예정

17. 사업장 쓰레기 무상수거 실시 (일본 오부市)

○ 일본 오부(大府)시는 청소업자가 유료로 처리하고 있는 신문, 잡지, 페트병 등 사업장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겠다고 결정

- 유료로 수거돼야 할 사업장 쓰레기가 무상 수거되는 가정쓰레기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증가해 소각로 부담이 커짐.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 무상 수거 결정

- 대상업소는 3000개소며, 신문과 잡지, 골판지, 스틸캔, 알루미늄캔, 병류, 페트병, 대형 비닐, 플라스틱 완충제, 문서재단기로 재단된 고지(古紙) 등을 시험적으로 2개월간 무상 수거하기로 함.

(chubu.yomiuri.co.jp/news_kan/kan070112_2.htm)

18. 에코포인트 통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건설공사, 리모델링 작업 후 남는 불법 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에코포인트(Ecopoint) 운영

-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후 남은 자재가 불법으로 도로나 거리, 공원에 남겨져 위험하며 레저 공간을 빼앗고 미관상 문제가 됨.

- 에코포인트는 불법 쓰레기 수거 외에도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서비스국과 환경미화국에서 시내 7개 장소에 에코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48개 에코포인트가 개장될 예정

- 에코포인트는 가정, 산업, 병원 쓰레기는 받지 않고, 건설 분야 쓰레기(시멘트, 벽돌, 타일, 나무 등)와 오래된 가구, 나뭇가지, 부피가 큰 자재를 받고 있음.

- 서비스는 무료지만 1인당 하루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4020)

19. 교통 신호등에서 연간 온실가스 5만 톤 배출 (영국)

- 영국 에너지연구소(UK Energy Research Centre)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교통 신호등이 소비하는 전력을 만들기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연간 5만 톤에 달함.

- 영국 전역에 현재 42만여 개 교통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설치율이 연간 3%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 시스템을 2010년까지 전력 소비율이 낮은 발광다이오드(LED) 신호등으로 교체할 경우 5만 7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도 얻고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www.ukerc.ac.uk/content/view/368/863)

- 런던, 2007년 2월 8일 '런던의 경제와 여성' 컨퍼런스를 열어 소비자로서의 여성, 성차별 금지법 등의 주제로 다각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

<영국>

- 150억 파운드(약 2조 7500억 원) 예산 투자해 영국 전체 전력 수요량의 1%(13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풍력발전소 2곳 건설 예정

·템스강 하구에 10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London Array 발전소'를, 켄트지역 해변에 3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Thanet 발전소'를 건설

- 영국 평등기회위원회, 성평등법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어도 최고위층 여성비율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출산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직장문화가 주요 원인

도 시 교 통

20. 도시 주차카드 판매 (뉴욕)

○ 뉴욕시는 市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과 도로변 가로주차 시 사용가능한 주차카드를 온라인과 뉴욕시 용품점(CityStore)에서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새롭게 바뀐 노상주차미터기는 동전과 지폐, 주차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동전을 항상 휴대해야만 했던 기존의 노상주차미터기의 불편함을 해소

- 카드는 20달러(약 1만 8600원)부터 시작해 50달러(약 4만 6500원), 100달러(약 9만 3000원) 단위로 판매되며 시간당 주차비는 2달러(약 1860원)임.

- 뉴욕시 교통국(NYDOT: New York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카드 판매와 사용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음.

(www.nyc.gov/html/dot/html/motorist/parking/municard.html)

21. 광역버스카드 '이지페이 익스프레스' 시스템 시행 (뉴욕)

○ 뉴욕 메트로교통공사(MTA)가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광역버스카드인 '이지페이 익스프레스'(EasyPay Xpress)를 새롭게 선보임.

- 카드 최초 개설 시 50달러(약 4만 6500원)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며 카드 차액이 25달러(약 2만 3000원) 미만이 될 경우 자동으로 50달러가 보충되는 방식

·50달러가 인출될 때마다 추가 10달러(약 9300원)가 자동 적립되므로 10달러 할인 효과가 있음.

·광역버스 요금이 5달러(약 46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무료로 2번 이용할 수 있게 됨.

·뉴욕시내 지하철과 지역버스에 무료 환승할 수 있고, 지역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때도 카드 사용 가능

- 이지페이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기간은 2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뉴욕 메트로 교통공사로 접수하면 됨.

(www.easypaymetrocard.com/nyct.PersonalAppVw.srv)

22. 무료 견인서비스 확대 시행 (캘리포니아州 오렌지카운티)

○ 오렌지카운티 교통국은 지난 14년 동안 91번 유료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무료 견인서비스를 캘리포니아 남북을 연결하는 5번 고속도로에도 적용하기로 결정

- 무료 견인서비스는, 오렌지카운티 고속도로 순찰국과 견인회사가 협력해 사고나 갑작스런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차를 신속하게 견인해 운전자 안전과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교통국은 무료 견인서비스로, 곤경에 처한 운전자 약 90만 명을 도왔다고 함.

- 오렌지카운티 외에도 캘리포니아州 13개 카운티가 무료 견인서비스를 시행 중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towpatrol18dec18,1,231454,print.story?coll)

23. 시내버스 운전기사 요건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운전 자격 요건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자격이 정지됨.
  ·업무에 복귀하려면 먼저 정신과 검사를 받고 최근에 정신·육체적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어운전 교육을 받은 후에야 가능

○ 상파울루市는 단속원이 좀더 신속하게 차량 속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피스톨 방식 속도감지기와 모든 태코그래프(운행기록계)를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에는 1만 5000대의 시내버스에 GP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완료로 더욱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3895)

도시계획·건설·주택

24. 장기적 서민주택 공급을 돕도록 시장 권한 강화 추진 (런던)

○ 런던시는, 런던 주택정책에 시장 권한을 강화하면 서민주택 공급과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07년 말까지 관련 법령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이 법령이 통과되면 런던시장에게 주택정책 관련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런던자치구 내 개발계획 과정에서 주택부문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제정 배경은 런던에 현재 15만 명이 임시주택에, 15만 가구가 좁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80만 명의 인구 증가와 매년 3만 500호의 주택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임.

-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런던시장은 최근 '주택전략계획'(towards the Mayor's Housing Strategy) 보고서 발표

(www.rudi.net/news/12715)

>>> 전문가 검토의견

- 주택문제가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정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시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사례임.

- 서울시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과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임.
·하지만 실제 공급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분양가 안정화 및 장기임대 주택 등의 시책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서울시 주택기금 확대와 조달창구의 다변화가 필요함.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귀속분을 늘리거나 국가 귀속분 사용에 서울시장의 결정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25. 개발자와 문화재 보호기관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영국 에든버러市)

○ 역사적인 도시 에든버러市의 문화역사환경 보존과 주택 공급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업자와 문화재 보호기관의 협력 프로젝트 발표

-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업자가 개발과정에서 역사적인 환경 가치를 고려한 도시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는 장을 마련하게 됨.

- 역사적인 환경과 도시 건축 환경의 질이 도시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함.

- 에든버러市의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는 기회도 동시에 마련하는 계기가 됨.

(Planning, 2007. 1. 9)

26.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시장 권한 행사 (런던)

○ 런던시장은 최근 Hammersmith and Fulham 자치구 공장이전적지 개발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숫자를 낮추는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함.

- 반대 이유는 2006년 수립된, 수도권 집중육성계획인 '런던플랜'(The London Plan)과 런던시가 추구하는 주택정책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1/3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가족단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족형 주택 지침이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런던시 관계자가 말함.

- Hammersmith and Fulham 자치구 관계자는 런던시장이 자치구 도시계획 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반박했지만, 런던시장은 '런던플랜'이 제시하는 주택정책과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698403.html)

27. 도시계획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의원 대상 도시계획 교육 필요 (영국)

○ 영국 정부는 최근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가, 자치구 의원의 관계 연구를 바탕으로, 자치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규 도시계획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자치구 의원이 도시계획 초기에 관여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밝힘.

- 도시계획 처리과정에서 자치구 의원이 관여하는 비율은 약 45%에 지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755642.html)

방 재 · 안 전

28. 효율적·총괄적 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통제센터 회사 설립 (영국)

○ 영국 정부는 영국 중동부지역의 효율적·총괄적 화재 방재를 위해 영국 최초로 지역통제센터 회사를 설립할 예정

- 이 회사는 첨단 통제센터를 기반으로 화재발생지역에 소방차 배치, 소방차 길 안내, 화재발생 장소와 건물의 평면도면 제공, 화재 진압을 위한 물 공급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

- 8개 지역 방재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간 효율적인 방재관련 업무 수행

- 회사 형태를 띠지만 이익 추구는 하지 않음.

(www.planningresource.co.uk)